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주정



세계 최고 자동차 제조업체 도요타에도 노사분전의 시대가 있었다. 지난 1953년 80일간의 파업으로 도산위기를 맞은 끝에 ‘해고 2천명·창업자 사퇴’라는 아픔을 겪었다. 노사는 이후 55년간 단 1건의 분규 없이 회사를 키웠다. ‘회사가 어려우면 현장도 어려워진다’는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접은 것이다. 이는 ‘조직의 DNA’로 승화돼 고비 때마다 작동했다. 임금관행도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하는 ‘先 성과·後 분배’ 구도로 정착했다. 도요타는 지난 2007년 마침내 GM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세계 1위에 등극했다.

고비마다 위기극복 DNA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도 위기를 겪었다. 폭스바겐 노조는 90년대 초반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위기에서 대대적인 근로조건 양보로 회사를 살렸다. BMW도 폐업의 갈림길에 몰렸던 1995년을 잊지 않고 있다

가 사시(社是)가 되다시피 했다. 우리 자동차 업계도 상생의 추억은 있다. IMF 환란 5개월여 전인 1997년 7월 2일이었다. 아시아자동차 노사는 이날 방만한 경영에 따른 존폐의 위기 앞에서 모

GM, 기아차의 미래일 수 있다

처럼 경영합리화 방안에 합의한다. 전체 임직원의 18.6%인 1천447명 감축, 임금 조정 회사 위임이라는 혁명적인 안이 나왔다. 노력은 가상했으나, 뒤늦은 조치였다. 아시아는 같은 달 15일 ‘부도유예 기업’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협력업체에 발행한 어음이 은행으로 돌아왔을 때 잔고 부족으로 부도처리는 하되, 당좌거래는 허용되는 잡름발이 신세였다. 채권은행이 맘먹으면 허물 수 있는 ‘모래상’이었다. 아시아는 우여곡절 끝에 1999년 3월 29일

현대차에 인수돼 기아차 광주공장으로 거둬나면서 위기에서 벗어난다. 12년이 흐른 지금, 기아차 광주공장은 당시의 8배가 넘는 4조9천억원의 매출 기업으로 성장했다. 생산능력은 7배인 연간 42만대로, 생산직 평균 연봉은 2배인 5천만원대로 급증했다. IMF 이후 제자리걸음을 해온 다른 기업들의 보수와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요즘 다시 위기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생산량은 22%, 수출은 21%가 줄었다. 부도 이후 처음 겪는 불황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자동차 수

요가 격감해서다. 한때 세계 최정상이던 GM이 파산하는 등 미국 내 빅3 기업이 흔들리고 있다. 그 틈새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노조는 근무시간을 줄이고 임금은 올려달라고 요구 중이다. 들어가지 않으면 전면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이미 몇 차례 벌인 부분 파업만으로도 1천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손실을 입었다. 19년째 해마다 되풀이해 온 파업 시리즈다. 누적 피해를 2000년부터만 계산해보도 생산차질 6만5천대에 매출손실 8천700억원

에 이른다. 눈 앞의 이익을 위해 서로 대립하고, 거대로 일관해온 노사관계가 야기한 피해다. 기아차의 이런 노사관계는 GM의 그것과 닮아 있다. 20세기 기업의 아이폰 역할을 했던 GM 몰락의 원인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강성노조로 인한 비용부담 요인이 컸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연금·건강보험 비용 등으로 도저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노사가 서로 믿고 생산공정을 개선해 현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소홀히 했다. 성과배분에만 열을 올렸다. 경영진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도 노조 편에 설 때가 많았다.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와 경영진의 무능, 정치적 포퓰리즘이 결합해 회사를 망친 것이다.

‘삶은 개구리’ 물라

개구리가 끓는 물속에 들어가면 곧바로 튀어나와 살지만, 서서히 뜨거워지는 비커 속에 있으면 조금씩 적응해 가다가 결국 죽는다고 한다. ‘개구리 삶기 신드롬(The Boiling Frog Syndrome)’은 오늘 우리 기업에도 찾아올 수 있다.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면 기아차도 비커 속의 개구리가 된다. 전면 파업을 앞둔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파이를 나눌 때가 아니다. 키울 때다.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시설

노사 상생으로 지역경제 위기 넘자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를 겨우 넘은 광주경제에 다시 ‘빨간 불’이 켜졌다.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등 지역 대기업 노조들이 잇따라 파업을 선언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아차 노사는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완전 월급제 도입을 둘러싸고 2개월이 넘도록 협의를 계속해 왔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노사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액도 500억 원대를 넘어섰다. 지역 최대 사업장 중 하나인 금호타이어 역시 임금 협상을 놓고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임금 7.48% 인상, 성과급 지급 등이 노조측 요구사항이다. 반면 사측은 상반기에 1천4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만큼 임금통계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대량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제에서 이들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 기아차와 금호타이어의 연간 총 생산액은 7조5천억원

규모로 광주 제조업 전체의 30%를 뚫는다. 협력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고용인력은 2만여명에 달한다. 이처럼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 두 기업의 노사 갈등이 심화된다면 지역경제가 위기 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먼저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협력업체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노사갈등으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이때 노사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협력업체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노사간 극한대립은 그동안 쌓아온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광주 이미지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기업유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상생의 지혜를 발휘할 때다.

지역환자 수도권 쏠림 대책 시급하다

지역환자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광주·전남지역에서 서울 소재 의료기관으로 유출된 진료비는 무려 1천225억원에 달해 충격이다. 특히 2006년 1천127억원, 2007년 1천156억원 등 지역환자의 서울 유출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문제는 타지역에 비해 광주·전남 환자의 역외유출이 심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광주의 역내 이용률은 76.6%로 수도권과 더 가까운 대전의 78.4%보다 낮다. 더욱이 KTX 대전~목포 구간이 완전 개통돼 서울까지 2시간 내외로 줄어들게 되면 지역환자의 역외유출은 가속화될 게 뻔해 걱정이다. 지역환자가 서울로 빠져나가면서 유출되는 총진료비는 단순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환자가 서울로 가면서 그 가족들이 1~3명이 함께 갈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다.

지역환자의 수도권 쏠림은 지역의료수준이 낮다기보다는 서울 대형병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당뇨병’과 ‘고혈압’ 등 중소병원 이하에서 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자조차 서울 대형병원을 선호하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의료 질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서울지역 대형병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 이용자의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재정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 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오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저평가돼 있는 지역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김창균



바야흐로 방학의 계절이다. 장마철의 녹녹함이 채 가시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 달콤한 휴식의 장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모두 가볍지만은 않을 것 같다. 시험은 배워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는 절차일 뿐이다. 그럼에도 아이의 성적표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 마음인데, 이를 헤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쉬울 따름이다. 바야흐로 엄마들이 고민에 빠졌다. 특목고 입시안 개선, 고1 내신 성적대입 미반영, 고교 내신 절대평가로의 전환, 고등학교 이수 교과목과 수능 과목의 축소, 입학사정관제 전면 확대 등 남

로 클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무작정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조력자 역할을 하는 ‘메타맘(Beta-Mom)’이 되라는 말은 아니다. 적지 않은 엄마가 숙제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해 자녀를 방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서툰 ‘경험과 감성’보다는 철저히 계획된 ‘선행학습’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더 타당할 수도 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이와의 ‘소통’ 여부에 있지 않을까. 아이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짜준 일정에 따라 주입식 공부를 하는 것은 목마르지 않은 소를 억지로 물가로 끌고

여름방학, 자녀 교육의 방향은

치는 교육개혁안의 홍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다. 아이의 성격이나 명문대 진학 여부는 엄마의 능력에 달려있다면 엄마들을 유혹하는 교육 정보는 못할 터지듯 쏟아진다. 하지만, 장기적 전망의 부재에 따른 선택과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 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질 뿐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엄마는 자연히 ‘알파맘(alpha-Mom)’이 되어야 한다. 냉정고 문착에 여기저기서 모은 입시와 공부 자료를 도매하다 못해 스크랩북까지 만들기도 한다. 이웃과 만나면 ‘어느 학원이 좋더라’, ‘누가 과의 족집게라더라’라는 이야기가 귀를 쫓긋 세운다. 이에 대해 ‘솔빛 엄마의 부모 내공 키우기’를 쓴 이남수 씨는 ‘사슴을 아무리 훈련시켜도 사자를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엄마의 선택과 강요로 아이가 학원에 다닌다면, 아무리 좋은 학원이라도 들러리를 세우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엄마의 욕심이 오히려 아이가 스스

로 클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무작정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조력자 역할을 하는 ‘메타맘(Beta-Mom)’이 되라는 말은 아니다. 적지 않은 엄마가 숙제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해 자녀를 방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서툰 ‘경험과 감성’보다는 철저히 계획된 ‘선행학습’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더 타당할 수도 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이와의 ‘소통’ 여부에 있지 않을까. 아이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짜준 일정에 따라 주입식 공부를 하는 것은 목마르지 않은 소를 억지로 물가로 끌고

광주일보에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 채택된 원고는 고로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기고

심유정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입후보 예정자를 비롯해 유권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다. 매니페스토란 선거공약을 말한다. 매니페스토는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公約)’으로, 기존의 선거공약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수치와 달성 목표를 내세운 선거공약이다. 다시 말해 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법과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유권자에게 약속한다는 것이 매니페스토의 특징이다. 매니페스토는 1980년대 영국에서 처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도로 포장’ ‘복지 확대’ ‘지역발전’ 등과 같은 막연한 공약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은 지방의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공약을, 단체장은 단체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공약을 다음 기준에 맞춰 내세워야 할 것이다. 자신이 내세운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인가(Specific)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Measurable) ▲정말로 달성 가능한가(Achievable) ▲지역의 특성과 연계해 타당성이 있는가(Relevant) ▲추진 일정을 명시했는가(Timetable)를 면밀히 검증하고 유권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0년 지방선거는 매니페스토다

을 도입돼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1997년 영국에서 토니 블레어가 매니페스토를 제시해 집권에 성공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일본에서 꽃 피우고 있다. 블레어는 ‘25세 미만 청년 25만 명 고용’, ‘5~7세 아동 학급 규모 30인 이하로 축소’, ‘향후 2년간은 현재의 지출제한 틀을 넘지 않겠다’는 등의 세밀한 공약을 내걸었으며, 공약 하나하나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포함시켜 유권자에게 공약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이처럼 후보자의 공약을 계량화해 유권자의 판단 기준으로 제공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같은 반지르르한 공약으로 유권자의 순간적인 환심을 사려는 공약의 남발을

후보자가 이처럼 구체화된 공약을 제시한다면 유권자의 표는 당연히 그 후보자에게 갈 것이며, 다음 선거에도 평가의 기준이 돼 표로 연결될 것이다. 이는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지 않는 정치인은 이제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할 자격이 없다는 추세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매니페스토는 단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선거를 1년 정도 남겨둔 지금 시점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입후보 예정자는 무엇보다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유권자는 2010년 6월 2일 4년의 지방살림을 꾸려나갈 준비된 후보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광주시 북구선관위 지도담당>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지켜 사고 예방하자

여름철이면 휴가를 즐기던 사람들이 물놀이 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어 행복한 가정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 물놀이 사고 방지 안전수칙은 수영금지구역 표지가 설치된 지역에서 물놀이 금지, 물에 들어가기 전 가벼운 준비운동 충분히 실시, 어린이가 물놀이 시에는 보호자의 시야 내에서 하고 수심이 어린이의 키를 넘는 곳에서 금지, 음주나 식사 후 바로 물에 들어가는 행위는 금물이다. 사고시 대처요령은 물에 빠진 사람을 발

견하면 신속히 119에 신고(핸드폰 전하는 지역번호와 119), 일행이 물에 빠졌을 때는 큰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구하려고 무작정 물에 뛰어 들지 말아야 한다.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는 로프나 튜브, 긴 막대기, 사람과 사람끼리 손을 잡고 물에 빠진 사람에 접근해 구조하는 방법이 있다. 물에서 사람을 구한 후에는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해 인공호흡을 하고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성복·광주시 지산119안전센터

無等鼓

통상 30~40대의 나이라면 직장에서 나름대로 위치를 굳힌 시기에 해당한다. 한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장엔진으로 불릴 만큼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연령대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들의 취업시장에 말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불과 1년 새에 전 국적으로 21만여명이 ‘백수’가 됐다. 한란 직후인 지난 1999년 1·4분기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큰 셈이다. 40대의 경우도 증감률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0대 가운데 일자리를 많이 빼앗긴 쪽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다. 월추 4배에 달한다. 비정규직이 많은 30대 여성들이 최근 이뤄진 구조조정에 집중적으로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높인다. 그나마 20대는 정부가 주도하는 청년인턴사업으로 감소세가 대폭 둔화된 상태이고, 50대 이상은 희망근로사업의 ‘태극’을 입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위안거리다. 그러나 청년인턴사업의 경우 취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 일자

리 창출과는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기 힘들 수도 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역시 정부의 기대를 배반할 가능성이 높다. 희망업종을 배려하지 못하는 등 졸속 추진되면서 공공근로와 같은 단순노무직으로 전락, 시행 한 달을 넘기기도 전에 탈락자들이 속출하는 추세다. 현 정부가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내걸었던 ‘5년 동안 15만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이제 골이 골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하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 데도, 한 정부부처가 최근 현재의 고용상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낙관적이라는 발표를 내놓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진작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경기회복을 앞당기기는 어렵다. 정부는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는 ‘반짝 행정’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추를 돌아봐야 한다. /이종대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30대의 실업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虎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대처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